

2003 지역축제 문화특명단

1차 위문

문화연대 시민사회위원회

일시 : 2003년 3월 28일(금) 저녁 7시

장소 : 문화연대 사무실

www.cncr.or.kr E-mail : ccac21@empal.com

(Tel) 02-773-7707 (Fax) 02-737-3837



시민참여형 문화모니터링 제도의 이해와 문화 모니터링의 필요성	3
2003 지역축제 모니터링 사업개요	10
지역축제 연구모임 계획안	15
보고서 양식	20
모니터링시 점검항목	23
축제 바로 보기를 위한 축제감리(참고자료)	25
지역축제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하여(참고자료)	35
2003 지역축제모니터링단 현황	40

시민참여형 문화모니터링 제도의 이해와 문화 모니터링의 필요성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장)

1. 축제의 시대와 시민문화 감리의 요구

주지하다시피,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축제와 행사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전국국제영화제, 과천마당극제, 춘천인형극제, 경주문화엑스포, 고양세계꽃박람회,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규모의 축제에서부터, 단오제, 춘향제, 대구약령시축제와 같은 전통문화축제, 그리고 진도영등제, 하동야생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풍기인상축제, 무안연꽃축제 등 중소규모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토착지역축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축제의 나라, 축제의 낙원처럼 부상하고 있어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는 제대로 된 축제(지역축제)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축제가 범람하는 시대에 축제가 없다는 역설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지역의 문화축제들은 지방자치 행정이 축제사업을 상업적인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방지체단체장의 캠페인성 치적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45년전부터 일종의 붐을 형성했던 각종 국제문화축제들도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선택된 사업의 일환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대부분의 축제들은 문화적 내용과 정체성의 빈곤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는 역효과를 낳았다. 심지어는 축제의 참여가 세대별로 명확하게 구별지워진단든지, 아예 지역의 문화축제를 지역시민들이 외면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축제들은 크게보아 4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인다.

1)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의 부재

현재 지역의 문화축제는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지리문화, 토산물에 바탕한 전통문화축제가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주제를 잡아 실시되는 국제형 문화축제가 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유형의 축제들이 모두 제대로된 정체성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문화축제는 지역적인 토착성을 벗어나서 현대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세대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국제규모의 문화축제는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증진시키는 노력없이 그야말로 지역을 외면한 이벤트성 행사에 매몰되고 있다.

2) 관주도형 문화축제

외국의 문화축제는 대부분 지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행해지는 축제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지역의 문화축제는 지역의 몇몇 토호집단들과 지방자치행정부가 주도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지역의 문화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이 나서서 문화축제를 기획한다든지, 중앙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의존하여 행사가 기획되는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문화인프라구축을 전제로한 문화축제가 반복된다면 축제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관이 형식적인 치적사업을 축적하고자 무리하게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자 고집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축제가 시민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축제관련 기획과 실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원칙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책임소재를 운운하며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의 문화축제에 지역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동원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3) 축제의 사전/사후 평가작업의 부재

일반적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기간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생겨났는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축제가 끝나고 지역의 문화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사후평가는 축제평가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사실 그나마 축제진행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를 단순한 소비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문화 환경을 바꾸는 촉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축제가 제대로 기획된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문화적인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작업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의 문화축제는 해마다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고, 예산낭비성 행사들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4)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방안의 부족

대부분의 문화축제는 축제를 목적으로 한 축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축제를 얼마나 잘 치루어낼 수 있을가에 대해서만 주관단체들이 집중했다. 물론 축제 자체를 잘 치뤄내는 것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긴하지만, 축제가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사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의 문화축제들은 축제가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이 없을 경우 어떤 축제든지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고히하면서 오래동안 전통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문화축제들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이후 지역문화축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문화행사나 문화사업들이 대체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문화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문화행사들이 건축공사와는 다른 문화적 예외조항이 있지만, 문화예술이 점차적으로 공공성을 담는 내용들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평가는 필수적이기도 하다. 문화행사/축제는 평가와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들은 문화를 전적으로 개인창조행위로 제한하려는 좁고 낡은 의미의 문화관이라 할 수 있다. 문화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행사를 주최하는 당사자들에게 문화적 자율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행사가 향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공공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작업이라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문화모니터링사업은 문화축제와 행사와는 대립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부분이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시민문화모니터링에 대한 몇 가지 전제들

그렇다면 그러한 문화모니터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이 아닌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해야할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는 타당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문화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해야지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행사나 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것은 단순히 당위적인 입장이거나 원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발전과 시민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실천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문화모니터링을 시민들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있다면 어떤 근거에 기반하는 것일까? <시민문화모니터링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그에 따른 몇가지 전제를 이해해야 한다.

1) 문화예술인도 시민이다

기존에 문화예술인은 특정한 장르에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주체들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예술인은 그래서 창작/생산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인으로 간주되어 일반시민과는 다른 영역에 속하며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문화환경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문화예술인은 창작/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만이 아닌 문화와 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문화예술이 제한된 영역의 개인창작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일상의 문화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문화예술인은 문화공공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창작자를 포함해 전문문화예술지식인,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주체로 나설 때는 특정한 문화예술인으로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수용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문화모니터링 제도는 도식적으로 문화예술영역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을 모니터링의 주체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문화예술인들의 시민참여적 활동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시민도 문화행사의 주체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문화행사와 축제에서 시민들은 문화소비자/문화수용자로 일별되어왔다. 시민들은 주어진 문화행사를 소비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당사자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문화축제를 즐겁게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이되는 문화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위상은 크게 보아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는 시민들은 문화축제와 행사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라는 점이고, 특히 지역의 문화환경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문화축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적 능력을 문화교육을 통해 확장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을 문화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예술의 바람직한 상을 스스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문화모니터링 활동은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식을 넓혀간다는 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환경들을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문화활동과 문화능력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3) 문화의 공공성을 높이는 문화모니터링활동

문화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시민문화의 공공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가 일부

예술가들을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모니터링 활동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시민사회영역의 중요한 영역이며, 시민사회가 강조하고 증대시켜야 할 과제이다. 지역의 문화축제가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이 행사가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축제의 예산사용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이익이 아닌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증진시켰는지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평가는 시민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문화예술의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문화행복권추구, 문화적권리의 분배,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축제는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권리가 보장되고 그 욕구들이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문화모니터링은 이러한 문화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4) 지역의 문화환경 지표만들기

한국의 문화축제와 행사들은 대부분 한번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자료들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문화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축제와 행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 문화축제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안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지역의 문화환경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을 기획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바, 지역의 문화환경 지표로 자료화될 수 있다. 문화모니터링은 단순히 개별 행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지역의 문화환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민문화모니터링의 활동과제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와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증진시키는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문화시설들 건립에 투자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올바른 지역문화예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높이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문화예술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예술 환경을 시민문화의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문화모니터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문화모니터링은 문화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용자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문화모니터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역문화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역의 문화지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몇 년전부터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과거와는 달리 민간전문가들이 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주관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어떤 점에서 실제적인 진전이 있었는지, 특히 최근 경기지역의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민간의 문화예술 참여 상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후 경기지역의 문화발전에 중요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의 문화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모니터링 사업은 지역문화축제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역문화축제 자체의 발전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을 뿐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문화모니터링의 참여자로 나섬으로써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문화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예술행사의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 소정의 교육을 받고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시민들과의 결합을 통해 시민들의 지역문화활성화에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모니터링은 이른바 지역문화의 시대의 올바른 정착과 시민참여형 지역 문화환경 건설, 지역별 문화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문화모니터링단이 앞으로 해야 할 활동과제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문화모니터링에 개념정립과 체계적인 교육

시민문화모니터링단은 무엇보다도 시민문화모니터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내부 모니터링단이 이를 공유하는 과정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까지 문화모니터링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더욱이 시민참여형 문화모니터링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방법이 체계화되지 못했다. 시민문화모니터링단은 내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시민문화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문화모니터링에 필요한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2) 문화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

문화모니터링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강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모니터링에 대한 평가가 지역문화발전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앞으로 문화모니터링이 건축에서의 감리처럼 제도화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문화모니터링의 과정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에 필요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틀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문화축제의 경우는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한 집행과정과 공정한 평가가 이후 축제의 진행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조례나 문예진흥법등에 적정 예산집행액 이상의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문화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3)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 제시

문화모니터링사업은 개별 축제에 대한 문화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해서 해당 축제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4)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모델 제시

지역의 문화예술의 인프라는 서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특성화할 수 있는 토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공간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우월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모든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서울과 동일하게 가져가려는 데 있다.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의 특성화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은 고급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지역문화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시민생활문화의 활성화에 있다. 문화예술을 문화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보거나 서울의 문화예술 공연장에 버금가는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지역의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자그마한 경험을 통해 시민생활문화에 만족을 가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가 결합하여 시민자치문화가 활성화되는 장기적인 비전을 문화모니터링단이 제시해야 한다.

5) 지역문화 공동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문화모니터링 제도는 결국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시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예술인이나 문화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그 환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경험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모니터링 사업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003 지역축제 모니터링 사업개요

김종필 (시민자치문화센터 상근활동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3년 3월 ~ 12월(모니터링은 10월까지)

▶ 사업목적

- ▶ 문화관광축제의 모니터링작업을 통해 각 개별축제의 문제점 파악 및 구체적 대안제시
- ▶ 문화관광축제와 지역문화/지역경제 발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 ▶ 시민문화모니터링에 대한 공감대/필요성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3번 진행 계획 • 1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점 공유 - 전체적인 사업 프로세스 공유 - 모니터링 희망 축제 신청 • 2차 워크숍 : 6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중간평가 - 모니터링이 실시된 축제에 대한 공유 - 지역축제 연구팀의 성과물을 활용한 심포형식 • 3차 워크숍 : 11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축제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축제 사전자료 수집/분석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연구분석 ▸ 평가지표 연구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축제관련 정책/조례 연구와 이슈화 방안 ※ 자세한 사항은 별도문서로 제출
축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료 수집/분석 ▸ 모니터링 실사 : 점검항목 체크, 관계자·관람자 인터뷰, 현장자료 수집, 사진촬영 등 ▸ 보고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별도문서로 제출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담당자 포함 ▸ 모니터링 결과와 연구분석 자료 논의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논의

표 1. 2003 지역축제 모니터링 사업계획

▶ 대상축제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지역축제 23개와 예비축제 7개

축 제	기 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주한국의술과떡잔치	03.29 ~ 04.03								
영암왕인문화축제	04.04 ~ 04.07								
팔만대장경축제(합천군)	04.09 ~ 04.13								
진도영등축제	04.16 ~ 04.19								
온양문화제(아산시)	04.25 ~ 04.28								
한산모시문화제(서천군)	05.01 ~ 05.06								
함평나비축제	05.03 ~ 05.11								
전국민속투우축제(정읍시)	05.02 ~ 05.05								
남원춘향제(남원시)	05.04 ~ 05.09								
지리산한방약초축제(산청군)	05.03 ~ 05.11								
대구약령시축제	05.07 ~ 05.11								
하동야생차축제	05.08 ~ 05.11								
춘천국제마임축제	05.28 ~ 06.01								
보령머드축제	07.19 ~ 07.25								
강진청자문화제	07.26 ~ 08.01								

축 제	기 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08.07 ~ 08.17								
무주반딧불축제	08.22 ~ 08.30								
금산인삼축제	08.29 ~ 09.0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09.26 ~ 10.05								
서귀포칠십리축제	09.24 ~ 09.28								
충주세계무술축제	09.30 ~ 10.06								
양양송이축제	10.01 ~ 10.05								
풍기인삼축제(영주시)	10.01 ~ 10.05								
김제지평선축제	10.02 ~ 10.05								
난계국악축제(영동군)	10.04 ~ 10.07								
광주김치대축제	10.14 ~ 10.19								
부산자갈치축제	10.15 ~ 10.19								
강경젓갈축제(논산시)	10.17 ~ 10.21								
진주남강유등축제	10.01 ~ 10.15								
이천햐쌀축제	10.23 ~ 10.26								

표 2. 모니터링 대상 축제

2. 운영계획

▶ 모니터링원 배정

▶ 신청

- 1차 워크숍에서 30개 축제에 대해서 자신의 일정과 관심영역 등을 고려하여 신청
- 모니터링을 원하는 축제에 대한 신청사유 기술

▶ 배정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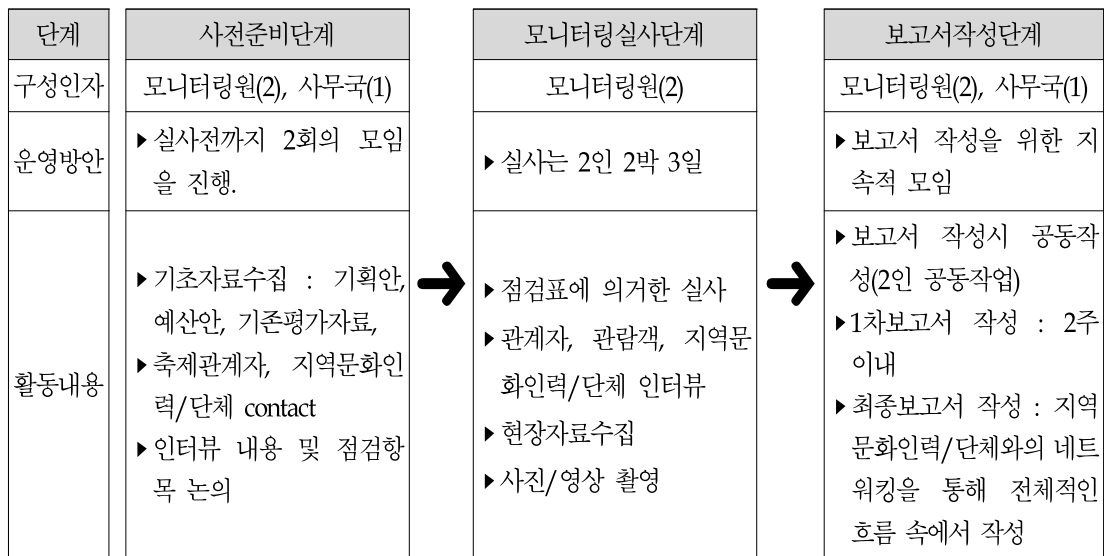
- 거주 및 활동지역 고려
- 축제(모니터링) 경험여부
- 지역문화관련 활동/연구 경험
- 신청축제와의 경험적 연관성
- 참여의 집중성과 지속성 가능여부

▶ 모니터링시 프로세스

▶ 전체적인 흐름

1. 모니터링단 1차 워크숍 : 본 사업에 대한 공유와 축제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2. 모니터링대상 축제 신청 : 개인의 일정/관심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하고싶은 축제를 신청
3. 축제별 모니터링원 배치 :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각 축제별로 모니터링원 배치
4. 사전준비단계
5. 모니터링실사단계
6. 보고서작성단계

▶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흐름



- ▶ 모니터링원 구성시 연구팀이나 사무국 중 1인을 배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함
- ▶ 사무국 인원이 모니터링원으로 결합할 경우 사전/사후 단계에서 별도의 사무국 인원은 없음

▶ 단계별 세부 내용

[사전준비단계]

- ▶ 기초자료수집/모니터링 준비
 - 기획안, 예산안 : 사무국에서 관광공사나 축제 조직위를 통해 입수
 - 온라인 자료수집 : 해당축제 사이트(게시판 글 포함)나 언론보도 자료 등을 조사
 - 기존평가보고서 연구/분석 : 문화연대나 타 단체/학교에서 발간된 전년도 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올해 모니터링에 활용(인터뷰, 점검항목 등을 작성시에 참고)
 -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전달 : 오프라인 인터뷰와 병행

-점검항목 정리 : 사무국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점검항목을 바탕으로 개별 축제에 해당하는 별도의 점검항목을 첨삭하여 정리

▸ 관계자, 지역문화인력/단체 contact

-관계자 사전 contact : 작년의 경우 즉자적인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의 성공률도 낮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많은 내용을 담아내지 못함.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면인터뷰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관계자를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사전에 contact.

-좀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네트워킹 할 단체 및 개인을 사무국에서 contact

▸ 출장비 수령 및 서류처리

[모니터링실사단계]

▸ 2인, 2박 3일을 기본원칙으로 함.

▸ 점검항목에 의거한 실사 진행

▸ 관계자 및 지역문화인력/단체 인터뷰 진행 : 관계자의 경우는 서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 인터뷰를 실시하고 단기간에 진행되는 모니터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개인/단체를 인터뷰

▸ 설문조사 진행 : 준비된 설문지를 현장 조사(관광공사측 인력과 협의)

▸ 사진/영상 촬영 : 가능한 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

▸ 현장자료수집 : 행사 팸플렛, 프로그램 시간표 등

[보고서작성단계]

▸ 1차 보고서는 모니터링원 각자 작성하고 최종보고서는 공동으로 작성

▸ 제시된 양식 그대로 작성하고 분량은 약 12매 정도(file로 작성하며 E-mail 송부)

▸ 1차 보고서 : 사전자료와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축제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작성

▸ 최종 보고서 : 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장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보충, 1차 보고서에서 미비했던 내용 등을 보충하여 최종보고서 완성

▶ 보고서 책자 제작

▶ 설문분석 : 내부 처리가 어려울 경우 아웃소싱

▶ 각 축제별 보고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분석 : 연구팀

▶ 개별 보고서와 연구/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 보고서 발간

지역축제 연구모임 계획안

류문수 (시민자치문화센터 기획실장)

1. 기본 방향

- 1) 지역축제모니터링 활동/시스템의 체계화
- 2) 지역축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3) 축제평가보고서 연구분석 작업
- 4) 지역축제에 대한 공론화

2. 연구(운영)방법 및 절차

- 1) 연구팀 (재)구성(기존연구팀+새 구성원=10~15명 내외)
 - ① 기존 연구팀: 개별 구성원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재편성
 - ② 새 구성원(기존 연구팀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 중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
- 2) 자문위원 구성(3~5인 내외)
 - ① 자문위원 선임(안)
 - 김규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책임연구원)
 - 안이영노(문화기획자/문화평론가)

- 김채현(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 이 훈(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 이현식(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② 자문위원 역할

- 축제(모니터링)연구 방향/내용/방법 전반에 대한 자문
- 연구성과물 검토 및 감수

3) 연구/운영방법

① 연구모임 구성 : 확대 연구워크숍(월1회)+개별 팀별 연구모임(월1회)

- 확대 연구워크숍 : 각 팀별 주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총괄적 점검·논의
- 개별 팀별 연구모임 : 각 팀별 과제 수행 및 팀별 논의 구조

(대략 과제별 2팀으로 구성: 팀장 선임)

② 축제모니터링 커뮤니티(프리챌)를 중심으로한 소통체계의 활성화 및 집중화

- 일상적 정보/자료 공유
- 각 팀별 논의 및 (회의)기록의 창구로서의 역할

③ 연구방법

- 개별 팀별 연구모임
 - 각 과제별 자료수집/공유 → 분석/연구(자문) → 자료화
 - 대략 2~3팀으로 구성
- 확대 연구워크숍
 - 개별 팀별 연구모임의 흐름과 연계해서 진행
 - 각 과제별 프리젠테이션 및 심화 연구/논의
 - 주요 연구과제 관련 연구팀 교육 프로그램(축제관련 연구자, 축제기획/운영/평가 관련 현장 문화활동가와 함께하는 강좌/토론 프로그램 등)

3. 연구과제 및 내용(커리큘럼)

1) 일상적 연구과제

- ① 2003 모니터링 대상축제 30개에 대한 기본조사/분석/연구
- 범주별 접근

- 축제성격에 따른 접근: 문화예술/전통문화/지역특산물/지역특성화축제)
- 각 평가지표별 분류화/분석작업

② 2002 지역축제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괄적 분석 및 연구

- 각 범주별 분석
- 각 평가지표별 분류화/분석 작업

2) 집중 연구과제

① 평가지표/방법의 정교화 및 체계화

- 모니터링 기본 매뉴얼 제작

② 지역축제활성화 방안연구

- 범주별/개별축제별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 지역축제 각 부문별
- 해외 사례 분석

③ 축제관련 정책/조례연구 및 이슈화 방안

- 축제조직위/지역문화인(단체)/언론·방송매체와의 네트워킹

④ 작성된 지역축제보고서에 대한 집중분석/연구

- 1달 동안의 집중연구기간 설정(11월)

4. 진행 프로그램 - 세부 일정표

4월	1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팀 세부계획 공유 및 역할분담(매뉴얼 제작 포함) • 축제 1차 강좌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일상적 연구과제> 수행 - 2002 지역축제 분석 - 2003 지역축제 기본조사 및 분석/연구(보고서 분석 포함) • 축제모니터링 매뉴얼 제작관련 논의 및 수행
	2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2차 강좌 • 2002/2003 지역축제 분석관련 프리젠테이션 및 토론 • 매뉴얼 총괄 검토 및 논의
5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일상적 연구과제> 수행
	3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3차 강좌 • 기간 작성된 평가보고서 관련 논의 및 프리젠테이션 • <집중연구과제1>: “지역축제활성화방안 연구”관련 팀별과제 설정

6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연구과제1>: “지역축제활성화방안 연구”(각 범주/부문별) - 세부 팀별과제 수행 • 팀별 <일상적 연구과제> 수행
	4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모임 중간평가 및 토론 • <일상적 연구과제> 집중 논의
7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기본연구과제 수행 • <집중연구과제1>: “지역축제활성화방안 연구” 수행
	5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작성된 평가보고서 집중 분석/연구 - 범주별 분석 • <집중연구과제1>에 대한 논의
8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연구과제> 수행 • <집중연구과제1> 수행
	6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연구과제1>에 대한 각 부문별 프리젠테이션 및 집중논의
9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연구과제> 수행 • <집중연구과제2>축제관련 문화정책/법제 연구수행
	7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연구과제2>에 대한 팀별 프리젠테이션 및 논의
10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연구과제> 수행 • <집중연구과제2> 수행
	8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연구과제2> 총괄토론 및 정리 • 최종연구보고서 작성관련 논의(세부계획/방법/역할분담 등)
11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작성된 평가보고서 분석/연구 • 최종연구보고서 작성(11월말까지 작성을 목표로 함)
	9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연구보고서 작성관련 집중논의 및 최종 검토
12월	팀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지역축제모니터링에 대한 각 주요부문별 평가 • 기간 수행된 연구과제 정리작업
	10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지역축제모니터링 총괄평가 • 연구과제별 프리젠테이션 및 총괄토론

표 1. 연구팀 세부 운영계획

제00회 00축제 평가보고서

• • • • 축 제 개 요

▪축 제 명	회수를 기재해 주세요.
▪축제주최 / 주관	주최 : 주관 :
▪축제일시 / 기간	2002년 월 일 ~ 일(일간)
▪축 제 장 소	
▪예 산	총액(국고, 도비, 군비...그외 예산의 구성도 포함)
▪장 르	

• • • • 서 술 평 가

1. 축제기획 및 예산

1-1. 기획취지와 방향 → 적절성, 현실적합성,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에 부합여부

1-2. 기획(프로그램) 내용 → 기획주체의 전문성/실무경험, 기획의 절차, 기획의 독창성과 참신성, 평가시스템의 존재 유무 및 방법

1-3. 기간과 장소설정 → 개최시점/축제기간/장소설정의 적절성, 공간 활용도

14. 예산 → 규모의 적절성, 편성/집행의 투명성과 적절성

2. 축제준비과정

2-1. 지역주민들의 참여(참여시스템) → 직접적으로 참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유무 및 활용 여부, 실제 참여부문

2-2. 조직체계 → 인적구성, 역할분담/업무체계의 효율성

2-3. 홍보(체계) → 효율성과 적절성

2-4. 준비기간 확보 및 준비정도 →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여부, 기획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진행되었는가?

3. 축제시행과정

3-1. 축제참여도/만족도 →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실제 참여정도

3-2. 축제진행/운영 → 진행/운영의 원활성 여부

3-3. 축제관련 인프라 및 편의시설 → 각종 서비스/축제관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3-4. 프로그램 형식/내용 → 기획취지와 부합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4. 축제인지도/이미지 및 사후 영향평가

41. 축제인지도/이미지 → 축제의 대내외적 인지도, 축제에 대한 이미지도

42. 문화적 효과 → 문화향수 제고,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문화활성화 기여, 지역문화정체성
정립

43. 경제·관광 효과 → 지역경제와 관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5. 총괄평가(전년도 평가와 비교) → 구체적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시 점검항목

[기본점검항목]

항목	내용
지역 문화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주요 문화/역사/전통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축제 및 문화행사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단체/모임 · 주요 문화예술관련 시설/공간 ▶ 지역특산물 ▶ 지역의 문화정책방향 및 내용(추이를 고려해서)
지역 경제/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성) ▶ 전체 예산규모/ 문화관련 예산비율/ 재정자립도 ▶ 지역의 경제/산업구조

[개별축제 점검항목]

항목	내용
축제재정규모 및 재원구성 항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재정규모(변화추이) ▶ 재원구성(비) ▶ 세부예산항목 구성(비)
기획 및 조직/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주체(민/관/이벤트사/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인력의 해당축제관련 경력 ▶ 기획/운영인력의 활동거점 ▶ 조직운영체계(조직도) ▶ 자원봉사(인원, 구성내용, 배치) ▶ 상설 조직위/사무국 존재유무 ▶ 지역주민 참여시스템 존재 여부 및 참여방법
준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조직위 및 실무단위체계 구성시점 ▶ 축제준비기간(진행과정/단계별) ▶ 홍보시작시점 ▶ 홍보방법(매체) ▶ 축제캐릭터(마스코트) 등 축제상징물 존재 및 활용여부 ▶ 축제홈페이지 존재 및 활용여부 ▶ 축제홈페이지의 안정성 및 지속성 여부

항목	내용
현장점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및 행사장 접근성 ▶ 행사장 내외 시설의 완비여부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서비스/안내시설 ▶ 통역 ▶ 홍보물(종류, 수량, 내용) ▶ 편의시설(화장실/휴식공간/식수시설 등) ▶ 주차시설/공간/비용 ▶ 숙박시설(가격, 수용규모, 위치 등) ▶ 먹거리 코너(종류/가격/위치) ▶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가격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수/만족도/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 행사 ▫ 공연프로그램 ▫ 체험/참여프로그램 ▫ 전시프로그램 ▫ 기타프로그램 ▶ 참여자 층위(연령/성/지역별)
기타점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평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스템 존재여부(내부/외부) ▶ 평가주체 ▶ 평가방식과 항목 ▶ 평가시스템 활용여부 ▶ 사후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현장참여자/관련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각종 매체의 평가 종합 ▶ 축제관련 토론회/공청회 분석, 관련(평가/분석)자료물 참고 ▶ 문화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축제관련 인프라의 양적/질적 변화 ▫ 축제관련 인력의 양적/질적 변화 ▫ 축제와 지역민/참여자와의 문화적 소통 효과(축제에 대한 이미지 등) ▫ 축제 몰입도/집중도(축제장 체류시간, 집중한 프로그램의 수, 축제자체에 대한 관심 정도) ▶ 경제적(관광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관광객 규모 및 유형 ▫ 주변 경제인프라의 매출 경향 및 영향 ▫ 해당 축제가 주는 관광적 매력 포인트 (축제참여/관광관련 직접적인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지역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통한 지역인지도/이미지 상승효과 여부 ▫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 ▫ 지역통합 및 공동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 해당지역에서 개별축제가 갖는 위상 및 영향

축제바로보기를 위한 축제감리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I. 다양성의 전시, 축제의 범주

축제란 용어는 손에 잡히는 명확한 개념도 아니면서, 어디에 붙여도 대충 이야기가 되는 애매한 오브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페스티벌이라는 용어까지 합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다 못해 무슨 백화점 세일 축제에서 당첨축제까지 생각하면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이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헛갈릴 수밖에 없이 써대고 있어서 과거 1996년 11월 30일 412개¹⁾였던 축제가 현재는 900여 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게는 2~3,000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예전에는 전시회 혹은 공연행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여럿이 할 때는 그냥 축제를 붙이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단순한 특산품 전시회에 조금 덧붙여 축제라고도 하니 도대체 몇 개의 축제가 있는 지도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된 연유에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축제의 개념이 명확히 서질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축제의 범주를 적절하게 나누어 보는 것이다. 특히 축제처럼 명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대상의 경우 나누어진 분류를 통해 전체 모양을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앞으로 잠시 돌아가 도대체 왜 축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또 나누어야 하는지 의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학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현상을 나누거나, 아니면 통제와 지

1) 한국의 지역축제, 1996, 문화체육부

원을 위한 형식적인 구분이 될 필요는 없다. 또한 그러한 작업들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나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적이 많지만 축제의 개념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은 축제의 범주를 의미, 성격이나 속정이 아니라 축제가 기여할 수 있는 아니면 가져다 줄 수 있는 목적에 의해서 축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축제가 엉망이 되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의식이 없고 이에 따른 특성화 및 정확한 문제의식이 부재하여서 생겨난다. 이러한 현상에는 축제들을 목적에 맞추어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던 과거에 빗지고 있다. 축제가 목적성에 의해 정확히 구분될 경우, 이에 따른 참가 및 방문 대상, 홍보, 프로그램 구성, 인력, 조직 및 예산이 차별되면서 특성 있게 준비될 수 있다. 그런데 목적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 예술, 관광, 지역정체성 등 여러 마리 토끼가 난립 될 경우 결론적으로 아무나 무조건 많이 오고 많이 벌면 어중간한 축제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고 지난 시절동안 그렇게 해 왔다.

이렇듯 예술페스티벌이나 시민축제나 사람 많이 오는 것이 최고로 평가되고 얼마를 버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면서 축제는 어거지식 백화점 파티가 되어 버렸다. 2002년의 광주 비엔날레는 물론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지난 4회 중 가장 흥미 있었지만, 지역 언론은 가장 먼저 방문객이 줄어든 것만 들이대고 있다. 행사가 달성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나, 예술성 장기적인 비전은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전국에서 어떤 목적이고 성격이던지 많이 와서 돈을 떨어뜨리면 성공된 지역축제라는 공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축제의 목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분류를 하고자 한다. 그전에 축제의 종류 중 가장 많이 헛갈리게 되는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궤적을 한 번 짚을 필요가 있어서 먼저 서술코자 한다.

○ 페스티벌의 기원과 변화

페스티벌을 지칭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술’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표현하는 예술의 장르가 고급예술이나 대중예술이나 혹은 순수예술인가 아니면 상업예술인가 정도이다. 페스티벌이 처음 시도되었다고 하는 유럽의 경우 축제=페스티벌의 공식은 대체로 성립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축제는 페뜨(Fête), 스페인은 피에스타(Fiesta), 영국은 퀴스트(Feast)등의 라틴어의 같은 어원과 의미를 가진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더욱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내 생각에 영어권 국가에서 퀴스트(Feast) 라는 단어가 거의 옛날 구닥다리 구어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철저한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면서 카톨릭과 연계된 예전의 전통 축제가 많이 없어진 연유를 들 수 있겠다. 이는, 영국의 많은 현대 지역 축제는 카톨릭의 정서가 제외된 ‘장터’(Fair)축제인 것이 대부분인 점에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혹자는 유럽의 경우에도 소규모 박람회나 종합 민속문화행사나 장터에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료행사는 페스티벌, 무료는 시민 ‘축제’라고 구분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럽의 경우 중세에 현대의 페스티벌과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하였던 기록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최초로 탄생한 페스티벌은 1876년 시작된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전(Bayreuther Festspiele)을 드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는 잘즈부르크 음악제 등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는 수준 높은 페스티벌들이 다수 생겨났으며, 이러한 19세기 후반은 초기 페스티벌의 탄생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초반기의 고급 예술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들은 현재의 페스티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민중 문화(Popular Culture)와 고급문화(Elite Culture)가 아직 확연히 구분되던 20세기 이전의 페스티벌은 고급 문화의 장으로서 닫혀진 상류층의 살롱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달라진 것은 연주가 및 작곡자 등 음악가와 청중이 동등한 입장에서, 특정한 분야에 관해 집중적인 감상회를 ‘조직’하였다는 점이었다. 당시의 극소수의 순수예술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최고의 음악성’ 다시 말하면 최고 수준의 작곡가, 연주자의 참여와 두 번째 ‘숙련된 청중’ 즉 상류 고급 문화에 익숙한 계층의 참가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19세기 말에 세워진 페스티벌의 전통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어졌다. 보르다 출판사의 20세기 문화 사전²⁾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페스티벌의 가장 큰 변화는 페스티벌의 대중화(Démocratisation)와 지방화(Décentralisation)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문화의 함유층이 계층별 혹은 지역별로 폭이 넓어진 점에서 기한 것을 알 수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특히 전쟁으로 침체된 유럽에 문화로서 삶의 활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집중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저명한 페스티벌이 많이 탄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들은 1947년의 에딘버러(Edinburgh)와 아비뇽(Avignon)의 공연장르 페스티벌, 1946년 로카르노(Locarno)와 칸느(Cannes)의 영화제, 1951년의 베를린 영화제, 1946년 프라하 음악 페스티벌 등이다. 이후 60-70년대에 들어서 페스티벌 문화는 동시대의 예술 및 사회 변화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 예술 장르의 급성장, 둘째, 산업으로서의 문화 가치 증대, 셋째, 관광의 보편화 및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가 고급예술의 대중 함유 수준이 성장하게 된 시점이라 본다면, 이후는 대중자체의 예술 장르가 급성장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과 이후의 전 세계의 주둔 미군에 의해 야기된 미국의 팝 예술의 전파는 이후의 이러한 미국식 삶의 방식(American Way of Life) 확산의 서곡을 알리게 되었고, 함께 동반된 대중 예술의 급성장이 이루어 졌다. 또한 이러한 대중 예술 저변의 대량 확산은 산업으로서의 문화가 중시되는 것과 함께 이루어 졌고 당시 기술의 진보는 고급 예술 특히 고전음악장르 분야도 역시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일조하였다.

관광 산업과 연계한 페스티벌의 성장은 사실 일반인들의 여가 문화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프랑스에서 1936년의 마티뇽(Matignon)협약에 의해 처음으로 일반 근로자의 유급 휴가 즉 바캉스가 탄생하면서 수에³⁾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소수 상류층이 아닌 모든 이의 여가활동이 정책으로서

2). FRAGONARD Michel (1995) *La Culture du 20e siècle*, Paris, Bordas

3). SUE Robert, 1980, *Le Loisir*, Paris, PUF, p 101

제도화 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여가, 관광문화의 한 큰 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잠시 멈추었다가 세계대전 이후 60년대의 물질적인 풍요, 바캉스 문화의 확산과 각 산악 및 해변 관광지의 개발과 함께 바캉스를 통한 문화 관광 활동이 확산되는데 크게 일조 하였다. 특히 지방의 각종 예술 페스티벌은 바캉스에서의 볼거리와 문화 향수에 목말라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현재 프랑스 전체 페스티벌의 3/4가 5월에서 9월까지의 바캉스 시즌에 개최되고 있을 정도로 예술페스티벌들이 한 시기에 집중되어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예술 장르 뿐 아닌 지역성 자체를 볼거리의 주제로 하는 민속 및 지역 특산 및 전통 페스티벌도 70년대 이후 관광의 물결과 민족국가의 독립에 발 맞추어 활발하게 생성되었고 이에 유럽 구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민속 페스티벌이 계속 생겨났다.

페스티벌은 80-90년대를 거치면서 또 다른 사회적 요구에 의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창조부터 젊어진 예술 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1976년 펴낸 잡지 '문화'(Culture III)에서 이자르(Isar)⁴⁾는 이러한 변화를 '젊은 층을 위한 조직에서 젊은 층에 의한 조직으로의 변화'와 아비뇽 축제이야기에서도 언급된 '페스티벌에서 축제형식 도입'의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젊은이에 의한 축제의 대표적인 예는 60년대의 우드스탁(Woodstock) 페스티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주제와 사례 외에도 전통적 의미의 예술 페스티벌에서도 젊은이의 참여는 70년대 말부터는 이루어 졌다. 1975년 바르셀로나 페스티벌에서의 '젊은이의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 및 조직 사례, 에딘버러 및 홀랜드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안에서의 열려진 프로그램에 의한 젊은 층의 참가 및 진행이 우선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으로 시작이 되었다. 가장 전통적으로 볼 수 있는 페스티벌인 바이로이트 축전에서도 '국제 젊은 음악인의 만남' 프로그램에서도 젊은 층이 주역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여졌다. 이외에 특히 젊은 층에 국한된 문화에 관련된 페스티벌인 팝 음악, 포크음악 등의 페스티벌에서는 점차 젊은 층에 의해 주도되는 페스티벌이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에서는 이러한 의미들에 추가하여 각 예술장르의 중요한 마케팅 장터로서 페스티벌의 기능이 중요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골적인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안시(Annecy) 애니메이션 건본 시) 아예 예술마케팅 시장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예술 페스티벌도 노골적이지 아니지만 그것을 향유 혹은 전파하고 싶은 프로듀서, 구매자들과 작가 특히 신진작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터가 되고 있는 점이 현대 예술페스티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예술 페스티벌로 춘천 인형극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광주 비엔날레, 과천 마당극제 등이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춘천 인형극과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재단법인 화과정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마임 축제, 마당극제의 경우 페스티벌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특성화에 성공하였고 한편 지역을 알리는데도 한 몫 하였다. 이러한 페스티벌 등이 성공한데는 페스티벌에 미친 몇몇 선지자가 있었고

4). ISAR R.F., 1976, La culture et les festivals d'art au XXe siècle, *Cultures vol. III*, Paris, UNESCO

급한 지역 홍보나 경제 활성화보다는 질(quality)을 높이려는 힘든 노력에 기한바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보다 페스티벌이 주제로 삼은 예술 자체가 기획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고 기획자들이 이러한 예술 활동의 저변확대와 국내외 교류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라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남들을 그래도 따라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축제도 계속되는 행정의 지원에 대한 우려와 축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다음 지원금을 위해서 마지못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제와는 다소 어긋난 행사에 그나마 적은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하거나, 지역 언론과 학자들의 숫자에 대한 광신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민들이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우리 나름대로의 예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노력, 해외 젊은 예술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국제화 등을 위해서 예술 페스티벌은 계속 줄기차게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민간 예술 기획자, 예술가, 시민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 축제의 분류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경우 '2001년 축제 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축제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문화예술 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전통)특산물축제'와 '지역특성화 축제'로 나누었다⁵⁾. 사업의 목적이 평가인 만큼 목적을 정확히 이룰 수 있는 관점과 방법에 의하여 축제를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축제' 평가의 기준의 경우 '문화 예술적 가치 및 완성도'와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들고 있고, '지역특성화축제'의 경우 기준을 '지역특성/축제 아이템의 문화적 가치'와 '지역문화발전과의 관계'를 들고 있다. 또한 감리 대상으로 '지역(전통)특산물 축제'의 경우 금산인삼축제, 하동야생차 축제 등의 사례, 그리고 '지역특성화 축제'의 경우 김제지평선축제, 충주무술축제, 고성공룡나라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무안연꽃 축제 등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평가할 때와는 다른 구분이 필요하다.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축제의 구분은 각각의 목적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축제의 조직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의 설정 부분에서도 구분된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된 목적과 성격에 어울리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단순한 지역 내의 넓은 공지에 이벤트식 스탠드를 강요하는 문화는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식상할 듯 싶다. 한편, 홍보 및 집객 대상도 이전의 다수 행사에서처럼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만 기대하였던 부분에서 더욱 목적과 부합하여 최대의 호기심과 만족을 꾀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5) 한편 1997년 문화관광부 '한국의 축제'에서는 축제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분류해 놓고 있다.

야한다. 행사 이후에는 행사의 성과 부분에서도 당연히 구체적이며 특화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화합축제에서 경제적 이익 평가 및 예술 페스티벌에서의 방문객 숫자 평가는 오히려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이에, 축제를 1. 예술페스티벌, 2. 전통지역축제, 3. 지역특산물 축제, 4. 관광자원축제로 구분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음 표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예술페스티벌의 목적은 해당 예술 장르의 진보, 저변인구 확보 및 작가 및 작품의 견본시의 기능을 제대로 만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해당 장르의 예술행사를 축제를 통하여 작가 및 제작자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 지고 또한 얼마나 관객에게 이들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느냐가 페스티벌 행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관람객 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술 페스티벌의 최우선의 목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반면 관광자원 축제는 가장 중요한 개최 목적이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이며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지역 관광수입 확대 및 장기적 관광상품 홍보의 성공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

축제의 범주	축제 개최의 목적	축제 성과 평가의 기준
예술 페스티벌	해당 예술 장르의 발전, 저변인구 확보 및 견본시 (전통예술장르도 포함)	해당 장르의 예술 행사를 충분히 표현 및 관객에게의 전달되는 성과 여부
전통 지역 축제	전통적인 의미의 대동 화합, 일탈 및 전통문화 느끼기	지역 공동체의 대동 축제적 의미의 화합 및 대동
지역특산물 축제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 여부
관광자원축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 관광 수입 확대 및 관광산업, 이미지 홍보 성공여부

표 1. 축제 범주 별 목적 및 평가기준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축제를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무엇보다 자신의 축제가 어느 유형에 들어갈 것인지를 계획하고 이를 통하여 축제를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 인력 및 조직,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축제 이후에도 각 유형에 맞는 평가를 할 경우 우리 축제에서 보여지는 다목적의 무목적의 오명에서 상당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II. 축제 바로 보기를 위한 축제 감리와 지역 축제

나는 원래 처음부터 축제를 따라다니던 사람은 아니었다. 학부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한때 경기도 포천의 공사현장에서 몇 달 동안 노가다 현장 설계도 해 본 적이 있는 어찌면 문화나 축제와 어울리지 않은 일에 종사한 적이 있다. 살다보니까, 노가다 판에서 어찌다가 축제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 전 오랜만에 반가운 단어를 축제 현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문화개혁시민연대에서 실시하였던 ‘축제 감리’였다. 일반적으로 설계 감리란 공사 시행 후 기본 설계 도면에 맞게 건설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축제 감리는 이와 달리, 지자체 실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축제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옛 직업의 향수는 별로 없지만, 축제 감리는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사업이었고 우리의 축제 문화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래도 이 사업에서 모자란 사람을 써준다고 해서 2001년 한해 동안 자문활동도 같이 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축제들이 발생하면서 축제들을 점검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은 각계에서 언급이 된 지 오래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축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관광을 위한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의 영향 측면에서 평가되기 일수였다. 특히 많은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평가는 거의 형식적 아니면 하나의 이벤트 상품으로서만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중요한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품의 개발보다는 시급한 이윤에 급급해 하는 입장에서 미흡한 평가를 해 왔던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지역 문화정책 및 문화활동과의 연계, 나아가 친환경성, 친문화성, 친역사성 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평가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한편 언론에서 행하는 축제에 대한 평가, 비판 및 기사도 전문성 없이 몇몇 방문객의 의견과 전문가의 단편적인 견해에 의해 축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선정성 있는 비판을 일삼고 있어 때로는 오히려 훌륭한 축제가 세금 낭비의 행사로 전락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2002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쓰레기 모양을 주제로 한 입구의 작품을 ‘비엔날레 장 쓰레기가 난무’ 등의 기사로 처리한 경우까지도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우수한 지방축제를 그 해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 및 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축제 선정 제도는 1997년 문화체육부가 관광상품성이 있는 지역 축제를 국제적 수준의 관광축제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목적지를 다변화하기 위해 이천 도자기축제 등 18개 축제를 '98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발표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축 제 명	기 간	주 요 행 사 내 용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제주)	2.23~2.24	○전통혼례, 집줄농기, 오름오르기, 무사안녕 풍년기원제 등
청도소싸움축제	3.16~3.20	○전국소싸움대회, 한·일친선투우경기, 예쁜소뽀기, 한우로데오경기 등
한국의술과 떡잔치(경주)	3.30~4.5	○술/떡의 실물·도구·자료 등 전시, 중국서안민속공연 등
영암왕인문화축제	4.7~4.10	○왕인설화마당극, 왕인박사도일고대향로대탐사, 백제민속놀이 등
기장대변명치축제	4월중	○멸치날기, 털기 등 어업현장 동행 프로그램, 멸치무료시식회 등
진도영등축제	4.27~4.29	○뗏목놀이, 바닷길 걷기체험, 진도특산물 선물받기 등
하동야생자축제	5월중	○차만들기대회, 어린이차예절경연대회, 녹차특별전시회, 올해의 명차선정 등
남원춘향제	5.4~5.8	○춘향제향, 창무극 춘향전, 춘향국악대전, 전통혼례식, 향토야시장 등
대구약령시축제	5.7~5.12	○대구국제한의학박람회, 전국약령시교류전, 우리약초 천연색깔전 등
춘천국제마임축제	5.22~5.26	○마임공연(인형극장, 방문공연, 거리공연 등), 도깨비난장, 마임강습회 등
한산모시문화제	6.1~6.6	○한산모시옷패션쇼, 한산모시디자인공모전, 모시새벽시장 등
세계태권도문화축제	6.28~7.7	○태권도무도대회, 전통무예체험, 태권도연수, 전통예술공연 등
보령머드축제	7.20~7.26	○머드마사지체험, 머드테마거리퍼포먼스, 갯벌체험, 머드조각체험 등
고성공룡나라축제	8.8~8.11	○공룡해상퍼레이드, 세계공룡발자국화석전시, 내가만든 공룡전시 등
강진청자문화제	7.28~8.3	○청자여름캠프운영, 청자야외영화제, 청자빛기체험, 강진청자 특별전 등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8.10~8.19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애니멀 로봇경연대회, 전통과학으로의 여행 등
무안연꽃축제	8월말	○동남아국가 참여 불교문화제, 풍물길놀이, 연꽃가요제, 국악공연 등
무주반딧불축제	8월경	○반딧불이 신비탐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운영, 남대천 뗏목타기 등
금산인삼축제	9.6~9.15	○세계민속페스티벌, 인삼캐기여행, 금산인삼동의보감, 약초썰기체험 등
난계국악축제	9월말~10월초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학술대회, 난계송모제, 난계국악단공연 등
충주세계무술축제	9.27~10.3	○국내외 무술시연, 무술패션 퍼포먼스, 명장퍼레이드, 병장복 의상체험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7~10.6	○탈춤공연, 하회선유줄불놀이, 탈춤워크숍, 탈만들기 등
통영나전칠기축제	9.30~10.3	○해상관광 유람선 운항, 나전칠하기, 문양그리기 등
김제지평선축제	9월말	○벽골제사, 쌍용놀이, 전통상례체험, 세계 쌀음식 기획전, 입석줄다리기 등
풍기인삼축제	10.2~10.6	○지역문화예술행사, 인삼요리경연, 인삼쌔쌔뿌리기, 인삼캐기체험 등
양양송이축제	10월초	○송이채취현장체험, 농가홈스테이, 송이보물찾기, 송이요리경진대회 등
부산자갈치축제	10.18~.22	○장어이어달리기, 맨손으로 활어 잡기, 생선회 정량달기 등
강경전통맛갈젓축제	10.19~.23	○젓갈 김치담그기, 강경포구 낚시대회, 젓갈김치시식회 등
광주김치대축제	10.23~27	○김치담그기 체험코너, 김치포장디자인 공모전, 민속놀이마당 등

표 2. 2002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당시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들은 외래관광객 유치가능성 및 상품성, 주최기 관의 축제육성의지, 숙박·교통·편의시설 등을 감안하여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추천, 선정되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크게 알려지거나 확대된 축제로는 이천 도자기축제, 금산 인삼제, 강진 청자 문화제, 한국 전통주와 떡축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등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03 상반기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한산모시문화제’ ‘대구약령시 축제’ ‘춘천 국제마임축제’ ‘춘향제’ ‘함평 나비축제’, ‘진도 영등축제’ ‘영암 왕인문화축

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등 9개 축제이며, 새로 도입된 예비 축제로는 ‘온양문화제’ ‘전국민속투우축제’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팔만대장경축제’ 등 4개 축제가 선정됐다고 한다.

앞에서 보듯이 ‘문화관광축제’선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제관광상품으로서 가능성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의 저변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축제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시점과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는 당근에 의해 문화관광축제는 의도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점차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관광산업 측면에서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더 중요하였던 전통축제, 예술 페스티벌, 시민 대동 마당, 민속행사 등이 새로운 관광축제로 강제로 변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또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우선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축제들은 다른 가치와 중요성을 유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실적의 소용돌이에서 맴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관광산업에서의 가치기준을 도입하면서, 예를 들면 관람객 수, 편의시설, 주차시설, 외래 방문객 비율, 홍보 방식 등의 지표가 우선되면서 전국의 알려진 축제들이 이러한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노력을 일제히 시도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심 사임당과 성춘향을 같은 기준으로 뽑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가치와 기준이 필요한 축제들이 한가지 목적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정체성과 다양성을 잃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결국 문제는 문화관광축제 선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선정 및 평가 과정이 중앙의 차원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에 축제 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2001년부터는 이러한 병폐를 고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민속축제’라는 범주를 새로이 지원하기 시작하여 축제 선정의 다변화가 늦게나마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2002년 지원 축제에는 매우 우수한 지역 민속축제들이 선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안성의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강릉단오제, 충남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위도 띠벚놀이, 여수의 진남제, 완도의 장보고축제, 경주 신라문화제, 공주 및 부여의 백제문화제, 산청의 남명선비문화축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정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광역단위 추천 형식을 띄고 있어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점에서, 현재까지 진행하였던 관 주도 평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의한 평가를 시도한 사건이 바로 ‘축제 감리 사업’이었다. 축제 감리사업은 결론적으로는, 2001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2002년 1월에는 사업의 성과물로서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개혁방안 연구 종합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일각에서는 이제야 자리잡아가고 있는 축제 문화의 싹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병폐를 조성해왔던 많은 이벤트 기획사와 주먹구구식 행정과 비리가 만연한 일부 축제 담당 지자체의 조바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이 축제 문화 일반 전체에 가혹한 비판을 가해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축제로 나아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

문화개혁시민연대에서 표방한 ‘축제 감리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의 부재, 관 주도형 문화축제의 문제점, 축제의 사전/사후 평가작업의 부재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방안의 부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체적으로 축제 문화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 참여 축제 기반 마련 및 지역 문화의 정책적 틀과 연계한 축제의 개발 등을 위한 지침이 되고자 하였다. 한편 지역 축제 실태조사의 원칙으로는 「문화감리적 원칙」, 「시민문화적 원칙」, 「문화환경적 원칙」과 「공공문화적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축제 감리 사업의 대상은 전국의 800여 개 되는 전체 축제를 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축제감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언급하기는 어렵고 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최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평가 항목, 가중치 선정 등 계량화 작업들이었고, 축제 범주 구분과 객관적인 정량평가도 쉽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도 적지 않았지만 나는 평가 결과자체도 매우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축제를 들여다보는 시도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에 이바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첫해에 발견된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지속적인 감리 사업이 차후에는 더욱 세분화되어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화개혁시민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즉 주민의 세금이 반영되는 축제들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서 ‘시민 평가 사업’의 항목 추가와 정해진 비율의 예산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민단체가 제시한 ‘축제 감리’의 의도와 필요성이 이제는 각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축제 문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주민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계기로 축제 평가의 항목, 지표도 지역별 혹은 축제별로 특성 있게 차별되어 제시되는 미래를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축제’가 단순한 관광상품, 아니면 지속적인 비난의 대상인 현실에서 벗어나 정말 신명나고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대동놀이 한마당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지역축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류문수 (시민자치문화센터 기획실장)

I. 문화의 시대....축제의 빈곤

90년 이래로 문화가 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문화는 정치나 경제적 영역의 종속개념에서 벗어나 동등한 범주로서의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가치와 의미를 획득해 나가게 된다. 특히 지역문화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포함한 문화적 영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접근과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지역과 계층 등 다양한 층위에 따라 아직 많은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적 욕구와 다양한 문화활동의 증가는 시대적인 주류적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진중한 고민없이 단순히 문화를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거나 혹은 문화를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과잉 격상시키는 도구적 사고의 흐름속에서 지역문화는 그 자체의 자생성과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지역문화의 한 가운데에 지역축제가 있다. 현재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대략 1000여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지난 수 년 사이에 엄청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시/군/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한해에 평균적으로 4~5개 정도의 축제를 개최하는 셈이다. 물론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의 증대와 문화향수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축제의 증가는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축제의 양적인 성장과 맞물려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냐에 대해서는 축제의 본 취지와 내용성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즉 축제의 형식화, 관성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문화/경제의 활성화, 지역(민)의 통합적 효과 등을 축제의 기본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 축제의 모습은 지역문화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을 축제의 수동적 객체/틀러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문화적 가치가 사상(捨象)된 경제주의적 접근의 본질적 문제점은 차치 하더라도 요즘 대부분의 축제가 지향하고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상품화 마저도 대체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과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꿈꿔오던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경제/문화 활성화가 하나의 '장미 빛 환상' 혹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점 확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문화의 시대, 축제의 시대에 축제의 빈곤, (지역)문화의 빈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지역문화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축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할 것인가?

II. 지역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역축제의 질적인 전환과 구조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축제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축제의 상과 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축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축제가 어떠한 상과 방향을 가져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대체적으로 지역축제는 해마다 의례적으로 되풀이되는 관성화되고 획일화된 문화행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90년대 중반에서야 축제에 대한 고민과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 점,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한국전쟁/군사독재의 문화적·역사적 질곡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우리축제의 역사는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지역축제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문화와 축제에 대한 고민의 부재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론 축제를 정치적/경제적/행정적 도구로서만 사고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역문화/축제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문화적 의미와 가치가 배제된 과도한 경제주의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축제가 갖는 대내외적인 효과와 의미는 비단 문화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 등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축제는 다층적인 가치와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요즘 시행되고 있는 축제의 모습을 보면 다분히 축제의 관광상품화라는 경제주의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축제가 단순히 전시성 기획상품이 아닌 이상 지역문화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적 결정체로서의 지역축제'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일상적인 영역에서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을 상호 공유하고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기획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축제는 체계와 비체계의 경계에 위치하며 절묘하게 균형을 유지해나가는 문화적 유기체로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적 영역에 비해 기획과 운영의 유연성이 더 요구된다. 하지만 기획과 운영의 전반적 흐름과 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현재 영화제나 과천 마당극제, 춘천마임축제 등 문화예술축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일선 공무원이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획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역문화인력을 중심으로한 기획/운영시스템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역내에서 기획/운영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참신하고 창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축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고유의 아이템과 기획취지를 충분히 살려내고 있지 못한 각 지역별로 차별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획일성과 볼거리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기획/ 편성의 단순성에 있다고 본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다면 볼거리위주의 단순화된 프로그램은 지역민과 축제참여자들을 축제의 수동적 객체로 전락

시키는 문제를 안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축제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 콘텐츠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축제라는 열린 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지자체공무원/지역문화인/지역민들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역축제가 형식화되고 내재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획/운영주체와 참여주체간의 분리적 사고와 소통의 단절에 일정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축제가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소통의 장(場)인만큼 기존의 닫힌 구조로 기능했던 축제시스템을 열린 구조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6.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축제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독자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축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객관화된 평가과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획-운영/진행-평가-기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피드백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조건에서 축제의 개선과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적 평가를 전제한 기획과 예산편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지역문화/축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실 지역문화의 불균형과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에는 지역문화정책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즉 지역문화에 관한 적절한 정책과 제도의 부재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문화적 집중과 편중 현상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문화적 격차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역문화/축제정책의 부재라는 악순환적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평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축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실행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지역축제로의 전화와 지역축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기존의 축제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일련의 비판적 접근이 요구됨과 동시에 지역문화의 자생성의 확보와 복원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뜰이나 침체되어 있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지역적 문화권력에 침식당하고 있는 불균등한 지역문화의 지형도를 수평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지역문화인/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지역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류문수 -월간 「민족예술」 11월(2001)
- <지역축제실태조사 및 개혁방안연구> -문화연대(2001)-
- <지역축제실태조사결과와 개혁방안> 최종 심포지움 자료집 -문화연대(2001)
- <상반기 지역축제평가보고서> -문화연대(2002)
- <하반기 지역축제평가보고서> -문화연대(2002)
- <2002 지역축제평가 및 활성화방안> 심포지움 -문화연대(2002)

2003 지역축제 모니터링단 현황

[신규신청자]

순번	이름	하는 일	연락처	E-mail
1	구경영	한양대학원 관광학과	019-9140-5015	kkay2000@hanmail.net
2	김균희	대학생	016-872-0610	gyoonhee99@hotmail.com
3	김민희		017-265-9404	mini27kr@yahoo.co.kr
4	김성열	회사원(기획, 마케팅)	011-759-7687	aricari@empal.com
5	김예림	경희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중	016-752-9067	ralla7@hanmail.net
6	김종포	VJ (비디오 저널리스트 www.hodipo.com)	019-590-5160	hamanlove@hanmail.net
7	김지영	덕성여대 어학실 재직	011-9646-0813	manilowkim@hotmail.com
8	김현주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문화예술행정전공5학기	019-307-8759	khj740815@hanmail.net
9	김혜영	관광경영학과 재학중(학부)	011-9667-6651	chongi111@hanmail.net
10	김활란	경희대 예술경영 재학중	011-398-9055	ghkffks@hotmail.com
11	김효진	작가	019-398-9926	cinema0@hanmail.net
12	류미경		016-730-1273	photon@freechal.com
13	박미숙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석사과정	019.9494.0803	sophy7807@hotmail.com
14	박용휘		016-748-9749	jajuin@hanmail.net
15	박정민	프리랜서 글 작가	017 - 223 - 1865	puoom@hanmail.net
16	서옥상	예비축제기획자	011-848-8911	sang5050i@hanmail.net
17	염완석	대전참여연대 문화모임	011-434-0162	kklinman@netian.com
18	우승인		011-9053-7086	dreaming1981@hanmail.net
19	유은정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3학년	011-9749-6941	dizysky@hanmail.net
20	유현숙	주부 겸 회사원	011-430-3608	ryuhere@nate.com
21	윤조식	복지문화단체 간사	016-735-3665	cyberpt@naver.com
22	이건식	공연기획	011-246-4846	philipfor@gdsn.net
23	이상욱	교사	016-779-2803	lsukorea@hanmail.net
24	이상운	예비문화기획자	011-390-0613	peter0726@korea.com

순번	이름	하는 일	연락처	E-mail
25	이성빈	문화시설/공연단체 취업 준비중	016-485-6668	sblee92@hanmail.net
26	이숙영	다움연구회 인턴	019-618-9858	baeksu22@hanmail.net
27	이유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간사(사회복지사)	011-9172-1050	s-b612@hanmail.net
28	이재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011 - 9904 - 6731	jhisen@dreamwiz.com
29	이종진	시민단체	016-636-1496	jongjinee@hanmail.net
30	임수경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문화예술행정학 석사과정	011-9956-0212	skyeye21@hanmail.net
31	정명희	한양대 관광학과 박사과정	016-297-7208	seriousness@daum.net
32	정소연	대학원생	016-585-4738	sy4738@hanmail.net
33	조혜정	한양대학원 관광학과 박사과정	016-566-8143	chohyejung@hanmail.net
34	지선애	BBB 운동본부 간사	011-9716-4164	sunaechi@hotmail.com
35	최소리	외대 불어과 3학년	011-9792-0741	ticsol@hanmail.net
36	최홍준	사진/웹 디자인 기획	019-9725-7766	konan2609@yahoo.co.kr
37	채중세	경희대 재학중	019-508-1980	blue-uu@hanmail.net
38	한동철	동화작가	011-9894-0108	uusam@hanmail.net
39	한지숙	한양대 관광학과 대학원 재	011-319-9306	jen0830@korea.com

[기존활동자]

순번	이름	하는 일	연락처	E-mail
1	고승일	통과의례페스티벌	019-391-8305	seigo@freechal.com
2	권오성	외국어대학원 러시아지역학과	011-653-6358	kosmosos@dreamwiz.com
3	권재효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무처장	016-692-8237	jejuyka@hanmail.net
4	김광오	이엔티글로벌 기획실	017-247-9572	backlit@hanmail.net
5	김기봉	강원민예총 사무처장	011-361-7664	kgb6461@hanmail.net
6	김상민		016-756-2612	youngilman363@hanmail.net
7	김용욱	중앙일보 출판사업부 마케팅 본부. 홍익대 4학년	011-9705-2444	nandahanda@yahoo.co.kr
8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011-638-8405	kculture@hanmir.com
9	김진희	추계예대 예술경영	016-747-6338	fortejin2@hanmail.net
10	김현주	추계예대 예술경영	011-223-3228	gril2004@hanmail.net
11	박경수	연출자	017-809-5671	pkpk09@hanmail.net
12	박유은미		019-438-3150	greeni3@chollian.net
13	백영선	통과의례페스티벌	016-771-8452	rockdam@freechal.com
14	서경화	추계예대 예술경영	018-277-3647	finewin@hanmail.net
15	이효순	성대 예술경영대학원	017-350-7862	indie88@hanmail.net
16	정신	축제 컨설팅	018-310-5594	jungsean@dreamwiz.com
17	최지연	축제만드는 사람	018-374-4737	estelle79@empal.com
18	하태준	축제 기획자	011-372-5152	wonjupd@hanmail.net
19	함은주	ICC 컨설턴트	017-750-5034	ttang77@empal.com